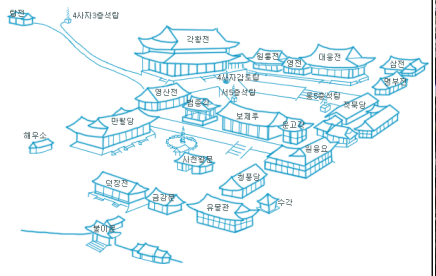
화엄사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화엄종을 대표하는 사찰의 하나이고, 신라 때 연기(緣起)조사가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근래 발견된『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에 의하면 8세기 신라 경덕왕 때 세운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신라에 화엄사상을 전파하고 교종 불교에서 황엄종을 성립시킨 이가 의상이며, 7세기경 의상이 낙산사와 부석사를 세운 이래 전국 각처에 화엄도량이 생겨났다. 이렇듯 화엄종이 전래된 시기가 7세기였던 점을 감안할 때, 화엄사가 세워진 시기는 8세기경이 유력하다. 연기조사는 황룡사 승려로 754년 화엄사에서 화엄경을 베끼는 작업을 주도했다고 한다. 이것은 당시 신라인들이 화엄의 북국토인 연화장 세계를 신라의 땅에 구현하려는 의지의 산물이었다. 연기조사 이후에는 도선이 이곳에서 출가하여 화엄을 배웠다. 그는 신라 하대 구산문의 하나인 동리산문을 크게 일으키고, 풍수지리사상을 집대성하였다. 신라 말에는 화엄학이 남악(南岳)과 북악(北岳)으로 나누어져 대립하기도 하였다. 화엄사는 후백제 견훤을 후원하는 관혜와 고려 왕건을 지지하던 해인사의 희랑이 대립된 학파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화엄사배치도



일주문

고려시대에는 의천이 이 절에 들러 연기조사의 영정에 예배하고 그를 찬탄하는 시를 남겼으며, 의천의 제자인 정인왕사도 이곳에 머물며 불법을 전하였다. 특히 의천의 아버지인 문종은 전라도 및 경상도 지역에서 나오는 곡물을 매년 이곳에 헌납하도록 하여 저장 창고를 두 채를 일주문 밖에 짓기도 하였다.

화엄사는 임진왜란 때 재난을 입었으나, 승려 벽암과 성능의 노력으로 불사 중창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많은 고승들이 머물면서

화엄사_대원사_정병삼, 김봉렬, 소재구_2005/

관광특구구례_구례군-2006년

화엄사상의 구현과 중생 제도를 위해 정진하고 있다. 사찰 내에는 국보4점 보물8점 천연기념물 2점등 많은 문화재가 있어 '문화재의 보고'로 일컬어지고 있다

각황전(국보 제67호)

지금의 각황전터에서 원래 670년경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하는 3층의 장륙전이 있었고 내부 사방의 벽에는 화엄경을 새긴 석벽이 있었다고 하나 임진왜란 때 파괴되어 만여점이 넘는 조각들만 절에서 보관하고 있다. 조선 숙종 28년(1702)에 장륙전 건물을 다시 지었으며, '각황전'이란 이름은 임금(숙종)이 지어 현판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 이 건물은 신라시대에 쌓은 것으로 보이는 돌기단 위에 앞면 7칸·옆면 5칸 규모로 지은 2층 집이다.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으로,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짜은 구조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이라 매우 화려한 느낌을 준다. 건물 안쪽은 위·아래층이 트인 통층으로 3여래불상과 4보살상을 모시고 있다. 천장은 우물 정(井)자 모양인데, 벽쪽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경사지게 처리하였다. 화엄사 각황전은 건물이 매우 웅장하며 건축기법도 뛰어나 우수한 건축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각황전



석등

각황전 석등(국보 제 12호)-높이 6.2미터

화엄사 각황전앞에 있는 이 석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동양 제1의 석등이다. 천체의 모습은 3000년에 한번 꽃을 피운다는 '우담바라'꽃 모양이며 지대석은 팔각형으로 간석의 형태가 특이하다. 연화대석 중간의 간석은 장구 모양으로 둘레에는 꽃무늬 띠기 둘러 있다.

화엄사_대원사_정병삼, 김봉렬, 소재구_2005/
관광특구구례_구례군-2006년

원래 각황전의 전신인 장륙전이 세워졌던 신라 때에 장륙전의 규모를 감안하여 여기에 적정한 비율로 석등의 규모와 조형적인 품격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 석등은 오늘날에도 각황전의 위용에 뒤질세라 당당한 기품으로 서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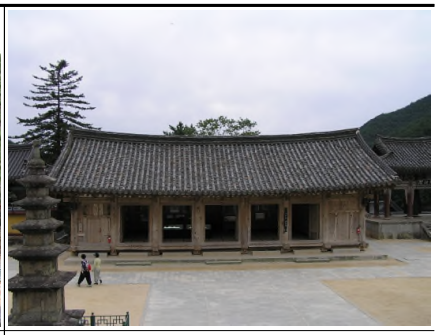
그리고 거대한 석등의 체구에서 느낄 수 있는 중량감을 여러 가지 무늬 장식과 받침부의 변화 있는 조형으로 완화시켰으며, 특히 상륜부를 강조함으로써 석등의 규모를 한층 신장시키는 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석등의 보존상태 또한 완벽해 통일신라 불교 전성기 조각예술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사사자삼층석탑(국보 제35호)-높이 6.7미터

각황전의 뒤편에는 동백나무 숲 사이로 오르는 계단이 있다. 그 계단위에 예전부터'효대.라고 불리우는 언덕에 사사자삼층석탑이 자리잡고 있다 이 탑은 통일신라 중엽 연기조사가 화엄사를 창건하고 어머니를 위해 효성어린 탑을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석탑은 우리나라 사자탑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수한 작품이면서, 또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사자탑이기도 하다.



사사자삼층석탑



보제루

기본 조형은 2층기단에 3층 석탑의 기본형을 따르고 있으나, 상층 기단에서 특이한 의장(意匠)을 보이고 있다. 하층 기단면에는 3구씩의 안상을 조각하여 그 안에 천인상을 양각하였고 모두 보관과 영락으로 몸을 장식하여 불천(佛天)을 찬미하고 있다.
화엄사_대원사_정병삼, 김봉렬, 소재구_2005/
관광특구구례_구례군-2006년

상층 기단은 각 모서리에는 연꽃 대좌 위에 앉아 있는 사자를 배치하여, 이 사자들은 연꽃을 머리 위에 인 채로 윗기단의 덮게돌을 떠받치고 있다. 이 석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석탑을 만드는 솜씨가 정상급에 오른 다음 새로운 변형을 시도한 특수형 석탑으로 불국사의 다보탑과 함께 8세기 중엽에 세워진 최상급의 통일신라 이형(異形)석탑에 속한다



당간지주



괘불탱화

영산회괘불탱(국보 제301호) - 크기 12미터 × 8.1미터

이 괘불은 화엄사에 중창 불사를 일으켜 완공한 뒤 벽암대사를 비롯한 화엄사의 모든 승려와 불자들이 공을 드리고 왕실을 축원하며 제작한 대규모 불화이다. 이 불화는 석가여래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광경을 그린 영산회상도라 할 수 있으며, 색체가 곱고 균형 잡힌 구도와 치밀한 선의 움직임이 돋보여 조선 중엽의 최대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불화는 1653년에 완성되었고, 화폭은 삼베 바탕에 채색을 하였다.

화엄사 괘불은 거대한 화면에 석가모니불과 문수, 보현보살을 중심으로 사천왕과 십대제자, 2구의 분신불, 십방제불등이 적절하게 배치된 군집도 형식의 영산회상도이다

조선 중엽의 보편적인 영산회상도와 다른 삼존상 위주의 독특한 구도를 지니고 있는 점도 이 불화가 지니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화엄사_대원사_정병삼, 김봉렬, 소재구_2005/
관광특구구례_구례군-2006년

동5층석탑(보물 제132호)- 높이 6미터

화엄사 대웅전 앞에는 동서로 쌍탑이 서 있다. 그 중에 동쪽에 서있는 것이 이 탑으로 크기는 서로 비슷하지만 서탑이 조각과 장식이 화려한 반면, 동탑은 아무런 장식 없이 단정하다.

동탑은 1층 기단위로 5층의 탑신을 올린 형태로, 서탑의 기단이 2층인 것과 조금 다른 모습이다. 기단의 각 면에는 모서리와 가운데에 기둥을 본뜬 조각을 두었다. 탑신은 1층 몸돌이 높이에 비해 넓어 안정감이 있다. 또한 각 층 몸돌의 너비가 줄어드는 정도는 큰 것에 비해 높이의 줄어드는 정도가 적어 늘씬해 보인다. 지붕돌은 매우 평평하고 얇은데 몸돌을 따라 너비의 줄어드는 정도가 큰 편이며, 그 중 1층과 2층의 차이가 한층 크다.

꼭대기에는 머리장식으로 노반(露盤:머리장식받침)과 복발(覆鉢:엎어놓은 그릇모양의 장식)이 있고, 다시 사잇기둥을 두어 보주(寶珠:연꽃봉오리모양의 장식)가 올려져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탑이 2층 기단인데 비해 1층 기단으로 되어 있고, 기단부의 돌 구성이 다소 느슨해진 경향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만들어진 시기는 서탑과 비슷한 9세기경으로 짐작된다.



동5층석탑



서5층석탑

서오층석탑(보물 제 133호)-높이 6.8미터

화엄사 대웅전 앞에 동·서로 있는 쌍탑 가운데 서편에 자리하고 있는 탑으로, 동탑이 아무런 조각이 없는 반면 서탑에는 조각과 장식이 가득하다. 형태는 기단(基壇)은 2층이고, 그 위에 5층의 탑신(塔身)을 세워져 있다.

화엄사_대원사_정병삼, 김봉렬, 소재구_2005/
관광특구구례_구례군-2006년

아래층 기단 각 면에는 안상(眼象) 속에 12지신상(十二支神像)을 방향에 따라 배치하였고, 윗층 기단은 각 면 모서리와 가운데에 기둥모양을 본떠 새겼으며, 나뉜 두 면에는 8부신중(八部神衆)을 조각하였다. 탑신의 몸돌과 지붕돌은 각각 하나의 돌이며 몸돌에는 각 층 모서리에도 기둥모양을 본떠 새겨 두었다.1층 몸돌 4면에는 4천왕상(四天王像)을 조각 배치하였다. 지붕돌은 각 층마다 밑면에 5단의 받침을 갖추고 처마밑은 수평이 되게 하였다.
머리장식에는 2층의 단을 둔 받침 위로 보주(寶珠:연꽃봉오리모양의 장식)가 놓여 있다. 석탑의 형태는 높고 가파르면서도 상하의 체감비율이라든지, 지붕돌을 경쾌하게 처리한 수법 등이 잘 조화되어 우아한 기품을 지니고 있다. 특히 아래층 기단의 12지신상 조각은 석탑에서 흔하지 않은 예의 하나이다.

위·아래층 기단과 1층 몸돌 세 곳에 나타난 조각상은 그 배치에 보다 신중을 기하였고 특히 12지신·8부중·4천왕 모두 불교의 수호신적 기능을 지닌 조형물이라는 점에서 탑 안에 모셔진 사리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각상을 각 부분에 새긴 점이나, 지붕의 조형이 보다 유연한 느낌을 주는 점 등으로 보아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석탑 남쪽으로는 안상과 연꽃이 조각된 배례석이 놓여 있다



사자탑



화엄석경

원통전 앞 사자탑(보물 제300호)-높이 3.4미터
이 석탑은 유일하게 화엄사에만 존재하는 매우 특이한 형태의

화엄사_대원사_정병삼, 김봉렬, 소재구_2005/
관광특구구례_구례군-2006년

탑으로 기단은 화엄사 사자탑 형식으 2층 기단을 구성하였고 탑신부는 단층으로 되어 있으며, 상륜부는 현재 모두 없어져 원래의 모습을 추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탑은 절 안의 원통전 앞에 서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독특한 석탑으로, 네 마리의 사자가 길쭉하고 네모난 돌을 이고 있는 모습이다. 절에서는 보통 노주(露柱)라고 부르는데, 무엇으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며, 불사리를 모셔놓은 것이라 하기도 하고, 불가의 공양대(拱養臺)로 쓰였을 것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이다. 탑을 받치는 역할을 하는 기단(基壇)은 2단으로, 아래층 기단은 무늬없는 석재로 구성된 소박한 모습이다. 이 탑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위층 기단은 각 모서리에 사자상을 놓은 모습이다. 사자들은 연꽃받침 위에 앉아 연꽃이 조각된 돌을 머리에 이고 있다. 탑신(塔身)에는 직육면체 모양의 몸돌이 있다. 몸돌의 각 면에는 직사각형의 테두리를 둘렀으며, 그 안에 신장상(神將像)을 조각하였다. 몸돌 위에는 1장의 판돌이 있는데, 밑면에는 연꽃이 새겨져 있고 윗면에는 반구형의 돌이 솟아 있다. 위층 기단을 네 마리의 사자를 이용하여 만든 것은 이곳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국보 제35호)을 모방한 것이나, 조각수법은 이에 못미처 이보다 훨씬 뒤인 9세기경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화엄석경(보물 제1040호)

석경(石經)은 경전의 원문을 돌판에 새긴 것인데, 화엄석경(華嚴石經)은 화엄경을 엷은 청색의 돌에 새긴 것이다.

통일신라 문무왕 17년(677)에 의상대사가 왕명을 받아 화엄사에 장륙전을 세우고 이곳에 화엄석경을 보관하였다. 지금의 각황전 터에 있었던 통일신라시대 건물인 장륙전의 안쪽에 화엄석경이 벽을 이루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석경에는 네모진 돌들을 서로 맞추어 끼웠던 듯 모서리에 연결을 위한 홈이 파여져 있다. 기록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화재로 석경들이 파손되었고, 색깔도 회갈색 등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화엄사_대원사_정병삼, 김봉렬, 소재구_2005/
관광특구구례_구례군-2006년

이 삼신불탱은 3폭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의 비로자나불탱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노사나불탱, 오른쪽에는 석가모니불탱을 각 한 폭씩 그렸다. 법신(法身)인 비로자나불도는 화면 중앙 상단의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협시인 문수·보현보살과 8대보살, 4위의 타방불과 6위의 제불, 사자와 코끼리 탈을 쓴 성중(호계대신(護戒大神), 복덕대신(福德大神))들이 에워싸듯 배치되어 대칭을 이루고 있다. 키 모양의 광배를 가지고 있는 본존불은 결가부좌한 채 앉아 있으며, 지권인의 손 모양을 하고 있다. 귀·눈·입·코등이 단정하게 표현되어 있고, 무릎 폭이 넓어 안정감이 있다. 머리에는 중앙계주와 정상계주가 큼직하고 귀는 기다랗고, 다자색 법의의 깃을 따라 연두빛과 분홍빛깔의 보상화무늬가 장식되어 다소나마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보신(報身)인 노사나불도는 두 손을 어깨까지 들어 올려 설법하는 모습의 손 모양에 보관을 쓴 보살형의 본존불을 중심으로 8대보살과 사천왕상 2위, 4위의 타방불, 3신장과 4금강이 주위에 빙둘러 배치되어 있다. 단정한 귀·눈·입·코 등에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는 있으나, 둥근 머리광배에 보관을 쓰고 귀걸이·목걸이·팔찌·구슬 장식 등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보살형 불상으로서의 꾸밈이 돋보인다.

화신(化身)인 석가모니불도는 유난히 몸광배가 큼직한 키형 광배에 악귀를 물리치는 뜻을 가진 항마촉지인의 손모양을 하고 있는 본존불을 중심으로 하단에는 문수·보현보살을 포함한 6대보살과 함께 2구의 사천왕상을 그리고, 그 위로는 흔히 등장하는 타방불 대신 가섭·아난존자를 비롯한 10대제자 및 4금강과 3신장, 용왕·용녀를 에워싸듯 배치하였다.

이 삼신불탱은 18세기 조계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의겸스님 외 13명의 화원이 동원되어 그린 뛰어난 작품으로 필선이 섬세하며 녹색을 많이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길이가 4m를 넘는 거대한 3폭의 화면에 삼신불을 완전히 갖춘 매우 드문 예로, 통도사대광명전삼신불도(보물 제1042호)와 더불어 18세기 삼신불도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화엄사_대원사_정병삼, 김봉렬, 소재구_2005/
관광특구구례_구례군-2006년

○ 서오층석탑사리장엄구(보물 제1348호)

1995년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에 소재하고 있는 화엄사 경내 서오층석탑(보물 제133호)의 해체보수작업을 하던 중 탑 내부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의 일괄 유물이다. 백지묵서다라니경, 청동불상범 외에 청동방울과 장식, 철제칼, 금속편, 수정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들 유물 중 백지묵서다라니경은 다라니경의 내용을 필사한 것으로, 고려시대 이전의 서적이나 기록이 거의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통일신라기의 종이·글자체·문자 등 서지학적 혹은 불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탑인은 한국 고대인쇄사에 있어서 초기단계를 알게 해주는 국내 유일의 실물자료이다. 청동불상범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한 불상 주조용 틀로서 불상의 대량생산을 알려 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화엄사 서오층석탑 발견유물은 통일신라시대 사회를 총체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유물들로 서지학, 미술사 등 학술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서오층석탑사리장엄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보물 제1548호)

화엄사 대웅전에 모셔진 삼존불은 화엄사상의 삼신불인 비로자나, 노사나, 석가불을 표현한 것인데, 도상면에서 법신, 보신, 화신(응신)을 나타내는 매우 귀중한 예이다. 이러한 삼신불은 불화에서는 많이 보이지만 조각으로는 드문 편이다. 특히 보관을 쓴 노사나불이 조각으로 남아 있는 이른 예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화엄사_대원사_정병삼, 김봉렬, 소재구_2005/
관광특구구례_구례군-2006년

이 삼신불상은 크기가 거대하고 단순하고 깊이의 강약이 느껴지는 굵직한 옷주름의 표현은 한층 상의 중후함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화엄사사적기』(1697년 간행)에 의하면 1636년 조각승 청헌, 영이, 인균, 응원 등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17세기의 대표적인 승려장인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화엄사 대웅전은 삼신불상은 조성연대를 짐작할 수 있고, 도상이나 양식면에서 17세기의 기준이 되는 불상으로 높은 의의가 있는 상으로 평가된다.



운고각



범종

화엄사_대원사_정병삼, 김봉렬, 소재구_2005/
관광특구구례_구례군-2006년

– 대웅전

- 四五百株花柳卷(사오백주하류권) - 무수히 많은 버드나무 숲
- 樓閣萬里華藏界(잔각만리화장계) - 만리에 뻗어 있는 연화장 세계의 절간들



사오백주화류권



잔각만리화장계

○잔각(棧閣)
– 장엄한 전각
○관현루(管絃樓)
–불전에서 관현악을 연주하고 독경하여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여 공양하는 누각
○자라장(紫羅帳)
– 자줏빛 비단으로 만든 휘장. 귀한 사람이 있는 곳에 침
○화장세계(華藏世界)
–세포처럼 나누어져 있는 우주의 모든 세계

- 二三千尺管絃樓(이삼천척관현루) -그 속에 수 천척 높이 솟은 관현루
- 紫羅帳裏撒眞珠(자라장리살진주) - 자색 장막 뒤에 진주 무수히 깔렸는데



이삼천척관현루



자라장리살진주

- 雨寶益生滿虛空(우보익생만허공) - 허공을 메워 오는 법의 비는 거룩하구나
- 衆生隨器得利益(중생수기득이익) - 그 가운데 중생들은 근기 따라 온갖 원 얻고 있네

求禮의 柱聯(구례의 주련)_(사)구례향토문화연구회_2007



우보익생만허공



중생수기득이익

– 각황전

- 偉論雄經罔不通(위논웅경망불통) -좋은 논장(論藏)과 거룩한 불경, 모두 동쪽으로 유통해서
- 一生弘護有深功(일생홍호유심공) - 일생 홍보하고 보호함에 깊은 공 있도다

○위론(偉論)
– 위대한 논장
○논장(論藏)
– 삼장의 하나. 성현들이 소설인 논論)을 모은 것
○웅경(雄經)
– 응위의 경전, 즉 귀하고 거룩한 경전
○의학(義學)
–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문도
○분등(分燈)
–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어 줌



위론웅경망불통



일생홍호유심공

- 三千義學分燈後(삼천의학분등후) - 삼천의 의학에게 부처님 가르침 나누어준 뒤
- 圓敎宗風滿海東(원교종풍만해동) - 원만한 가르침과 종풍(宗風)해동에 가득 하여라



삼척의학분등후



원교종풍만해동

.○오종(五宗)
- 오 종교를 말함.오교(五敎), 불교의 다섯 종파
①대승-천태종,화엄종, 범상종, 삼론종, 율종
②선종-위양종,임제종, 조동종, 운문종, 범안종

- 西來一燭傳三世(서래일촉전삼세) - 서쪽에서 온 등불 하나 삼세에 전하니
- 南國千年闡五宗(남국천년천오종) - 남국천년에 오종이 넓게 퍼지도다



서래일촉전삼세



남국천년천오종

- 遊償此增淸淨債(유상차증청정채) - 뉘라서 이 청정한 공로 더해서 갚을 손가
- 白雲回首與誰同(백운회수여수동) - 누구와 더불어 흰 구름에 머리 돌리리



유상차증청정채



백운회수여수동

– 명부전

○적선(積善)
- 착한 일을 많이 함
○업경대(業鏡臺)
- 중생의 업을 환희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

- 慈因積善誓救衆生(자인적선서구중생) - 자비의 인연으로 적선하고 중생 구하기를 서원하니
- 倘切歸依奚遲感應(당절귀의해지감응) - 간절히 귀의하면 어찌 감응이 더디 리요.



자인적선서구중생



당절귀의해지감응

- 掌上明珠光攝大千(장상명주광섭대천) - 손바닥 위의 밝은 구슬 대천세계를 비추고
- 手中金錫振開玉門(수중금석진개옥문) - 손 안의 손지팡이는 지옥문을 열어 주네



장상명주광섭대천



수중금석진개옥문

- 常揮慧劒斷滅罪根(상휘혜검단멸죄근) - 항상 지혜의 칼로 죄의 뿌리 잘라 버리니
- 業鏡臺前十殿調律(업경대전십전조율) - 업경대 앞에서는 시왕이 법률로 다스리네



상휘혜검단멸죄근



업경대전십전조율

求禮의 柱聯(구례의 주련)_(사)구례향토문화연구회_2007

– 원통전

- 一葉紅蓮在海中(일엽홍련재해중) - 한 떨기 붉은 연꽃 해동(海東)에서 솟으니
- 碧波深處現身通(벽파심처현신통) - 푸른파도 깊은 곳에 신통을 나타내시네



일엽홍련재해중



벽파심처현신통

○홍련(紅蓮)
– 천수관음을 상징함
○보타산
– 보타가락산, 인도 남쪽해안에 있는 산으로 관세음보살의 주거처라 함
○강림
– 불 보살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

- 昨夜普陀觀自在(작약보타관자재) - 어제 저녁 보타산의 관세음보살님이
- 今朝日降赴道場中(금조강부도장중) - 오늘 아침 도량 안에 강림 하셨네



작야보타관자재



금조강부도량중

– 나한전

- 諸大聖衆振玄風(제대성중진현풍) - 많은 불자들이 심원한 도를 떨쳤네

求禮의 柱聯(구례의 주련)_(사)구례향토문화연구회_2007

- 敎化羣生一體同(교화군생일체동) - 불자를 교육시키고 감화시킴은 한 몸과 같은 것



제대성중진현풍



교화군생일체동

○성중(城中)
- 성자의 무리,곧 불교 신도, 불 보살

○반장
- 손바닥을 뒤집음.

○일체동(一體同)
- 한 몸과 같다(떨어질 수 없는 것)

- 洞察人間如反掌(동찰인간여반장) - 인간사를 꿰뚫어 살펴보면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은 것이니
- 消災降福願皆從(소재강복원개종) - 제화를 없애고 복을 내림은 모두 자기의 원함에 따르는 것



동찰인간여반장



소재강복원개종

求禮의 柱聯(구례의 주련)_(사)구례향토문화연구회_2007

– 원통전

- 一葉紅蓮在海中(일엽홍련재해중) - 한 떨기 붉은 연꽃 해동(海東)에서 솟으니
- 碧波深處現身通(벽파심처현신통) - 푸른파도 깊은 곳에 신통을 나타내시네



일엽홍련재해중



벽파심처현신통

○홍련(紅蓮)
– 천수관음을 상징함
○보타산
– 보타가락산, 인도 남쪽해안에 있는 산으로 관세음보살의 주거처라 함
○강림
– 불 보살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

- 昨夜普陀觀自在(작약보타관자재) - 어제 저녁 보타산의 관세음보살님이
- 今朝日降赴道場中(금조강부도장중) - 오늘 아침 도량 안에 강림 하셨네



작야보타관자재



금조강부도량중

– 나한전

- 諸大聖衆振玄風(제대성중진현풍) - 많은 불자들이 심원한 도를 떨쳤네

求禮의 柱聯(구례의 주련)_(사)구례향토문화연구회_2007

- 敎化羣生一體同(교화군생일체동) - 불자를 교육시키고 감화시킴은 한 몸과 같은 것



제대성중진현풍



교화군생일체동

- 洞察人間如反掌(동찰인간여반장) - 인간사를 꿰뚫어 살펴보면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은 것이니
- 消災降福願皆從(소재강복원개종) - 제화를 없애고 복을 내림은 모두 자기의 원함에 따르는 것

○성중(城中)
- 성자의 무리,곧 불교 신도, 불 보살

○반장
- 손바닥을 뒤집음.

○일체동(一體同)
- 한 몸과 같다(떨어질 수 없는 것)



동찰인간여반장



소재강복원개종

求禮의 柱聯(구례의 주련)_(사)구례향토문화연구회_2007

○편액 -건물이나 문루 중앙 윗 부분에 거는 액자

내용 : 널빤지나 종이 또는 비단 등에 글씨나 그림을 그린 것이다. 대부분 가로로 길죽하여 횡액(橫額)이라고도 하고, 보통은 현판(懸板)이라고 부른다.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글씨의 경우 대개 대형이므로 대자(大字)라는 별칭도 있다.

편(扁)은 서(署)의 뜻으로 문호 위에 제목을 붙인다는 말이며, 액(額)은 이마 또는 형태를 뜻한다. 즉, 건물 정면의 문과 처마 사이에 붙여서 건물에 관련된 사항을 알려 주는 것이다.

○관지 - 중국의 종(鐘)·정(鼎)·이기(彝器), 즉 고대의 예기(禮器)인 청동기에 새긴 글자.

- 일주문 : 편액은 해서체로 智異山華嚴寺라고 세로로 쓰여있다 그리고 皇明崇禎九年 歲舍丙子仲秋義昌君光書(황명숭정구년세사병자중추의창군광서)라는 관지가 역시 세로로 쓰여 있어 쓴사람과 쓴 해를 알수 있다.'명나라숭정9년병자'로 조선 인조 14년(1636)에 해당한다. 글씨를 쓴 의창군 광은 선조 임금의 여덟째 아들로 당대에 이름난 서예가였다고 한다. 편액에 書者의 이름이 들어간 효시의 편액이다.

- 금강문 : 金剛門 : 해서체로 쓴 金剛門(금강문)이란 편액은 관지가 없어 어느 때 누구의 글씨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金剛이란 이미지를 잘 살려 筆線(필선)이 아주 힘차고 날카롭다.



일주문 현판



금강문 현판

- 천왕문 : 행서체로 쓴 天王門(천왕문) 편액은 관지가 없어 언제 어느 때 누구의 글씨 인지 알수 없다.

- 보제루 : 보제루(普濟樓) 전면에 걸린 해서체로 쓴 보제루 편액에도 관지가 없다. 그래서 어는 때 누구의 글씨인지 알 수 없으나 조선 후기쯤에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천왕문 현판



보제루 현판

불교문화연구-남도불교문화연구회_2002/ 화엄사의 편액과 주련_최성열
http://blog.daum.net/sws8007
http://100.naver.com

- 명부전 : 명부전(冥府殿) 편액글씨는 행서체이다.편액 오른쪽 세로 글씨로 쓰여 있는 관지로 보아 정조 23년(1799)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 대웅전 : 대웅전(大雄殿) 편액은 6쪽의 나무판을 세로로 짜 맞춘 다음 당초문으로 단청한 변죽으로 마무리 하였다. 글씨는 아주 단아한 해서이다. 崇禎九年 歲舍丙子仲秋義昌君光書 (숭정구년세사병자중추의창군광서)관지(款識)가 적혀있어 편액의 글씨를 쓴 사람과 쓴 해를 알 수 있다. 1636년에 선조임금의 아들인 의창군이 글씨를 썼다는 것이다. 화엄사에 남아 있는 편액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의창군 이광(義昌君 李珖

- 의창군(1589~1645)은 조선 제14대 임금인 선조의 여덟번째 서자로 호를 기천(杞泉)이라 했으며 시호는 경헌(敬憲)이다. 그는 판서를 지낸 허성(許筬)의 딸과 혼인했는데 1618년(광해군 10) 처족 허균(許筠)이 모반죄로 주살되자 그에 연루돼 훈작을 삭탈당하고 유배되는 비운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1623년 인조반정으로 유배에서 풀려나 인조의 총애를 받기도 했다.의창군은 글씨에 능해 당대의 명필로 이름이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부친인 선조가 즐겨 썼다고 하는 석봉 한호(石峰 韓濩)체의 글씨를 잘 썼으며, 특히 해서 대자(大字)에 뛰어났다고 한다.



명부전 현판



대웅전 현판

- 영전 : 영전(影殿)은 역대 조사 스님들의 영정을 모셨던 곳인데 1976년에 영정들을 도난당하고 지금은 화엄석경을 보관하고 있다. 영전에는 海雲(해운)이라는 관지가 있다. 글씨는 해서체이다.

- 원통전 : 행서체로 쓴 원통전(圓通殿)편액은 변죽이 있고, 그 안에 나무결이 다 드러나는 판목에다 글씨를 썼다. 관지가 있으나, 거의 읽을수 없다.



영전 현판



원통전 현판

불교문화연구-남도불교문화연구회_2002/ 화엄사의 편액과 주련_최성열
http://blog.daum.net/sws8007
http://100.naver.com

- 나한전 : 해서체로 쓴 나한전(羅漢殿)의 편액은 관지가 희미하게 남아 있으나, 판독이 어렵다. 정조 때 이 전각이 화재로 소실되어 다시 중건된 것이 1801년으로 보인다. 편액의 글씨도 그 무렵에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각황전: 해서인 각황전(覺皇殿) 편액은 모두 13개의 판목을 세로로 이어 붙여서 하나로 만들었다. 원래는 단청이 있었으나 지금은 퇴색하여 목리가 다 드러나 보인다.癸未孟夏刑曹參判李震休書(계미맹하형조참판이진휴서) 라는 관지가 있어 글씨를 쓴 해와 쓴 사람을 알 수 있다. 숙종29년(1703)에 형조참판 이진휴가 쓴 글이다.

○ 이진휴

- 이진휴(李震休) : 조선 숙종 때의 문신·서예가(1657~1710). 자는 백기(伯起). 호는 성재(省齋)·성암(省菴). 벼슬은 도승지·예조 참판을 지냈으며, 글씨에 뛰어나 많은 비문(碑文)을 남겼다.

○ 글씨체

- 해서체 : 글자의 서체(書體)의 한 가지로 중국의 예서(隸書)를 기본으로 하여 만든 서체. 붓글씨 또는 펜글씨와 같은 느낌을 준다. 이 해서체의 활자에는 세 가지 종류, 즉 청조제(淸朝體)·정해서체(正楷書體)·교과서체가 있으며, 사식(寫植)에서는 두 가지 종류, 즉 정해서체와 교과서체가 있다.

- 행서체 : 국·한문 서체의 한 가지로 해서(楷書)와 초서(草書)의 중간서체. 획이 굵고 자면(字面)이 검게 보여서 가독성(可讀性)이 좋지 않다. 그러나 미적인 감각은 비교적 좋다.



나한전 현판



각황전 현판

참고 자료 :

1.불교문화연구-남도불교문화연구회(2002)
- 화엄사의 편액과 주련(최성열-조선대학교 역사 철학부 교수)
2.http://blog.daum.net/sws8007
3.http://100.naver.com

불교문화연구-남도불교문화연구회_2002/ 화엄사의 편액과 주련_최성열
http://blog.daum.net/sws8007
http://100.naver.com

○ 암자

명산고찰에는 산 속 곳곳에 크고 작은 암자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큰스님들은 깊은 산 속에 작은 초막을 짓고 수행에 정진했다. 행정적인 보살핌이나 재정 운영은 산 아래 본절과 관계를 유지한 이러한 일인용 수도원들을 암자라 부른다. 재가불자들을 위한 대규모 법회는 본절에서 개최되며, 암자에는 소수의 스님들과 소수의 신도들만 찾을 뿐이다. 중생의 교화보다는 개인적 수행을 중시했던 암자 건물들은 가장 간단하고도 소박한 형태를 취한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암자 스님들의 개성을 따라 건축되므로, 일반 가람에서는 보기 드문 특이한 형태의 건물들도 나타나게 된다. 세속적 평가나 아름다움의 기준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엄사에도 14개의 암자가 있었다고 한다. 화엄사 정도의 명찰에 속한 암자들은 웬만한 가람을 능가하는 큰 규모의 것들도 많다. 암자를 찾는 신도나 스님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화엄사에는 지장암, 봉천암, 금정암 등 8개의 암자가 있다. 그러나, 제아무리 큰 규모의 암자라 하더라도, 국립공원 지리산의 깊은 산 위에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본절에 비해 방문하는 이들은 드물다. 그리고 이들의 건축적 특성 역시 노출되지 않아 일반인들은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연기암



금정암 입구

화엄사일원의 암자_화엄사진조스님_2002~2006

○ 연기암

맑은 물줄기가 여울에 부딪치니 화엄법계(華嚴法界)의 설법이요, 푸른 숲에 사각거리는 대나무 잎새는 청정한 우리 법신(法身)의 의상이다. 지리산(智異山)의 모습 그대로가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의 대적광(大寂光)이요, 법음(法音)이로다.

지리산에 자리잡은 연기암(緣起菴)은 해발 550고지로서 화엄사 산내암자로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섬진강이 굽어보이는 수려한 경관과 푸른 숲, 맑은 계곡, 청정하고 맑은 공기,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지리산 제일의 문수보살 기도도량이다. 연기암(緣起菴)은 천오백여년전(千五百餘年前) 화엄사종주(華嚴寺宗主)이신 연기조사께서 화엄사를 창건하시기 이전에 이곳에 최초로 토굴을 짓고 가람을 세워 화엄법문(華嚴法門)를 설하신 곳으로 대승정신(大乘精神)의 진면목과 절대평등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셨던 유서 깊은 화엄사의 원찰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임란(壬亂)을 당하여 잿더미로 변하여 사백여년(四百餘年)동안 칡넝쿨과 가시덤불에 파묻혀 축대만 남아 세월만이 무상하게 흘러갔다. 이에 원응당 종원대선사(宗源大禪師)께서 화엄성지 복원(復元)에의 간절한 서원을 세우시고 1989년 대적광전(大寂光殿), 문수전(文殊殿), 관음전(觀音殿), 적멸당(寂滅堂), 원응당(圓應堂), 일맥당(一麥堂), 지석당(智石堂) 등을 건립하여, 화엄법문이 지리산에 다시 울리고 세계로 퍼져나가 모든 중생이 화엄의 열반락에 동참 환희토록 도량을 중창하시었다.



연기암



연기암 문수보살상

화엄사일원의 암자_화엄사진조스님_2002~2006

○ 금정암

물맛이 좋기로 유명한 샘이 있는 암자이다.

하루가 바뀌는 시간인 자시(子時)에 물을 마시면 기운이 오르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전해진다. 화엄사에 속한 암자로써 조선 명종 17년(1562년) 설응(雪凝)스님이 창건하였다. 고종 때(1863-1907)에 칠성전과 요사채를 세웠다. 그러나 1991년 불이 나 건물이 불에 탔고, 1999년 10월 대웅전을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웅전 이외에 원통과 요사채인 심검당, 적묵당을 갖추고 있다. 원통전은 본래 고종 때 세원 칠성전을 수리한 건물로 내부에 관세음보살을 모셔 두었다. 심검당과 적묵당은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여 공부와 휴식장소로 쓰이고 있다. 작은 수행공간이라 특별하게 유물이나 유적 등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금정암



금정암 샘물

화엄사일원의 암자_화엄사진조스님_2002~2006

○ 구층암

구층암은 화엄사 대웅전 뒤편을 돌아 약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그 건축적 내용도 대단하지만, 그 참다운 가치를 알아주는 이들이 별로 없다. 화엄사 암자 가운데 옛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구층암에는 천불보전과 수세전, 그리고 두 채의 요사채만 있을 뿐이다.

천불전 안에는 작은 불상 1000구가 봉안되어 장관을 이루며, 지붕 밑에는 거북이와 토끼의 설화를 묘사한 민화풍의 조각상들도 장식되어 있다. 그 앞 대방채에도 곳곳에 사자상이나 코끼리상들이 조각되어 서민적인 냄새가 물씬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대방채를 이루는 전면기둥이다. 백년은 넘은 것 같은 큰 모과나무를 싹둑 베어서 전혀 다듬지 않고 생긴 그대로 기둥으로 사용했다. 나뭇가지의 흔적 뿐 아니라, 움푹 패인 나무의 결과 옹이까지도 생생하다. 밑 둥은 하나지만 위는 두 갈래로 갈라진 Y자형 기둥이 지붕틀을 받치고 있다. 휘어진 기둥이나 부분적으로 다듬지 않은 기둥은 드물지 않게 나타나지만, 이처럼 철저하게 손을 대지 않은 기둥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한 예는 구층암 승방뿐이다. 모과나무는 소나무와 달라서 쉽게 굵어지지 않는다. 오래된 모과나무라 해도 그 굵기가 가늘기 때문에, 다른 목재처럼 다듬어 사용하려면 너무 가늘어져 건축자재로는 적합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모과나무를 생긴 그대로 기둥으로 사용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일본 건축에서는 목조 건축의 부재를 흑목조와 백목조로 구분한다. 백목조란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다듬은, 흔히 볼 수 있는 부재를 말하는 것이다. 반면, 흑목조란 나무껍질을 벗기지 않고, 생나무 그대로 잘라서 기둥이나 보에 쓰는 방법이다.

화엄사일원의 암자_화엄사진조스님_2002~2006

흑목조에 대해 일본인들은 그들의 자연친화적 건축의 특성을 세계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흑목조가 뜻하는 것은 자연의 일부를 인공적인 건물 안에 살렸다는 의미다. 그러나 구층암 승방의 모과나무 기둥은 그 차원이 다르다. 자연의 일부를 삽입한 것이 아니라, 모과나무가 자라서 기둥이 되고, 지붕이 된다는, 자연이 곧 건축이 된다는 근원적인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확대 해석을 한다면, 나무의 밑둥은 기둥이요, 줄기는 보가 되며, 이파리의 잔가지는 서까래와 지붕이 된다. 인공적인 건축물은 곧 자연의 일부요, 확장이라는 자연주의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집이다. 나무라는 재료는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아름다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건축재료다. 그래서 구할 수만 있다면, 동서를 막론하고 가장 선호하는 것이 목조건축이었다. 한국건축의 주된 재료가 나무인 까닭은 우리나라 산에 양질의 나무들이 많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유가 컸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연을 빌려온다는 생각에서 그 사용량을 최소화하려 했고, 가급적 인공적인 가공도 최소로 유지했다. 휘어진 나무는 휘어진 대로 사용했고, 북사면에서 자란 나무는 건물의 북쪽에, 남사면에서 따뜻한 햇빛을 받고 자란 나무는 건물 남쪽에 사용했다. 나무란 건축재료 가운데 유일한 생명체였으며, 생전의 생장환경과 가장 유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재료의 수명을 오래할 수 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을 빌려온 작은 대가라고 생각했다. 구층암의 모과기둥은 그 자연주의적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소중한 예다.



구층암천불보전



구층암

화엄사일원의 암자_화엄사진조스님_2002~2006

○ 지장암

지장암(地藏庵)은 보광전과 요사 3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계암은 요사로만 되어 있는데 안에는 1992년에 봉안한 아미타불이 있다. 그리고 보적암은 토굴로 되어 있다.

1903년에 본존요사(本尊寮舍)만 창건된후, 1959년에 원응선사(源應禪師)가 중건, 1960년에 비구니인 최도석(崔道錫)스님이 보수, 1962년에 서광(瑞光)비구니가 후원요사(後院寮舍)를 중건하고 1968년에 보광전(普光殿)을 중건하였다. 보광전에는 관세음보살상과 신중단, 칠성,산신,독성탱화를 모셨다. 1988년에 비구니인 이정(利正)스님이 본존요사보수와 축대담을 쌓았다. 지장암은 약수와 천연기념물 올벚나무가 유명하다.



지장암



지장암 올벚나무

화엄사일원의 암자_화엄사진조스님_2002~2006

○ 우번대

차일봉은 우번대, 관음대, 종석대 등 여러 이름을 갖고 있다.

옛날 신라 도승 우번조사가 젊은 시절 조용한 상선암에 찾아와 10년 동안 좌선 수도를 결심하고 수행 정진했다. 불도를 닦은 지 9년을 넘기고 10년이 눈앞에 다가온 어느 봄날 저녁, 선녀처럼 아름다운 절세미인이 암자 앞에 홀연히 나타났다. 요염한 자태로 우번조사를 유혹하며 따라오라고 정답게 손짓하는 것이 아닌가. 그 유혹에 홀린 우번은 황홀감에 도취되어 수도승이란 자신의 위치를 잊은 채 그 여신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 미모의 여인은 보일 듯 말듯 온갖 기화요초가 만발하고 산새들이 즐겁게 노래하는 숲을 가볍게 지나쳐 높은 산봉우리를 향해 올라갔다. 우번도 그 여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신없이 따라갔는데 차일봉 정상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앞서가던 그 여인은 간곳없고 난데없이 관세음보살이 눈앞에 나타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우번은 자시의 도심을 시험하기 위해 관세음보살이 미녀로 변신한 것임을 비로소 깨닫고,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참회했다. 한참 뒤 주위를 살펴보니 관세음보살은 간곳없고 그 자리에 큰 바위만 우뚝 서 있었다. 자신의 수도가 크게 부족함을 깨달은 우번은 바위 밑에 토굴을 파고 토굴속에서 다시 수도 정진하여 수년 후 도통 성불하여 이름난 도력과 법력이 높은 스님이 되었다.

그래서 우번조사가 도통한 그 토굴 자리를 우번대라고 부르게 되었고 우번조사가 토통하는 순간에 신비롭고 아름다운 석종소리가 홀연히 들려왔다하여 이곳을 종석대라고 불렀다고 한다.



우번대



차일봉

화엄사일원의 암자_화엄사진조스님_2002~2006

- 연기조사에 대한 고찰지리산 구례화엄사 효대의 석상(승상)은 자장율사가 아닌 연기조사로, 왼손에 받쳐 들고 있는 용기는 찻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기조사는 1979년 신라 경덕왕 대에 작성된 <신라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의 발문에 '연기는 황룡사의 승려였으며 경덕왕13년(745)8월 1일부터 화엄경 사경을 시작하여 이듬해(755)2월 14일에 완성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진흥왕 대(540-576)의 인물이 아니고 경덕왕 대(742-765)의 실존 인물임이 확인 되었다. 이에따라 화엄사는 '신라 진흥왕 5년(544)년 연기가 창건했다'는 정병헌스님의 <대화엄사사적>을 비롯한 여러 분헌의 화엄사 창건 년대 기록은 오기임을 알 수 있다.

<통도사사리가사사적약록>이나 <대화엄사사적기>에 기록된 '인도승려 연기조사가 화엄사를 짓고 나서 인도에서 가져온 차씨를 화엄사 장죽전에 심었다'고 기록되었다. 즉 화엄사 창건과 인도에서 가져온 차씨를 심은 년대는 동일(755년 전후)하며 그리고 장죽전은 인도에서 연기조사가 가져온 차씨와 대렴이 828년 당나라에서 가져온 차씨를 같은 장소인 장죽전에 심었음을 알 수 있다. 연기조사의 출신국에 대해 이상봉은 '한국의 차시배지연구'(한국차학회)에서 '연기법사는 의상대사의 제자로, 중국에서 화엄종을 수학한 의상대사와 연기법사의 연관성과 연기법사가 중국에 가서 화엄학 유학을 하고 돌아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인도보다는 중국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기법사가 화엄학을 배우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차종가를 가져왔으며 화엄사를 창건하고 나서 장죽전에 심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타당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보다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죽전_구례군_2006

화엄사 장죽전에 대한 고찰

◎ 대렴이 가져온 차 종자를 지리산에 심게 하였는데 문헌조사 경과 그 곳은 화엄사 장죽전으로 판단된다.

그 까닭은 첫째,<통도사사리가사사적약록>을 비롯, 정병헌스님의 <대화엄사사적>,그리고 이에이리 가즈오의<조선의 차와 선>의 기록에 화엄사 긴대밭(長竹田)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둘째, 828년 당시에는 쌍계사가 창건되기 전이며 절도 없는 심산유곡에 당나라에서 가져온 귀중한 차씨를 심었을 까닭이 없다. 셋째 <신라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을 통해서 신라 조저에서도 화엄사에 대해서 잘알고 있었을 것이며 화엄사는 당시(743) 화엄 10찰 중의 하나로 고승 대덕들이 주석, 왕명에 의한 기념식수였을 가능성이 높다.

◎ 장죽전의 위치는 <대화엄사사적기>에는 '화엄사 부근과 뒤편' 이라 하였고 <조선시대의 파와 선>에는 '화엄사 산림 안 '이라 전제하고 '화엄사 밑 황전리(荒田里)라 하였으므로 화엄사 주변의 대밭이라고 판단된다. 즉 현재 화엄사 뒤편에서 구층암에 이르는 대밭과 호아엄사입구 동편 대밭을 모두 함께 긴대밭(長竹田)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 지역에는 차나무들이 자라고 있으며 구층암 대웅전 뒤편과 화엄사 효대 남서쪽에는 차나무의 고목들이 있으며 차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장죽전 대나무



장죽전 차나무

장죽전_구례군_2006

우리나라 최초의 사어인 <삼국사기> 흥덕왕 3년(828) 12월 조에 '당나라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사신 대렴이 차(茶)씨를 가겨오니 임금은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 차는 선덕왕 때부터 있었는데 이에 이르러 성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우리나라 차종자 전래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장죽전교



화엄사 가는 길

장죽전_구례군_2006

– 지리산에 관한 연구

지리산은 방장산으로 동방의 삼신산 중의 하나이다. 깊고 오랜 역사와 장엄한 산세, 광대한 면적에 걸쳐 있는 지리산과 그 주변 지역의 문화를 상호연관 지어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중국 진나라 진시황의 사자 서시(徐市)가 불로초를 구하러 1천여 명의 동남동녀를 이끌고 구례 지리산(방장산) 이르러'서시천'을 비롯 '지초봉', '지천' 등의 땅이름을 남겼다. 불로초인 영지(영신지)와 방사들의 선약제료인 차(茶)와 관계를 보다 깊게 연구, 구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지리산 차 유적지 고찰

지리산지역의 차 유적지는 화엄사의 효대(孝臺), 쌍계사의 진감(眞感)국사의 비석글(국보 47호), 실상사의 수철(秀撤)화상 능기보월탑비 (893년 건립), 칠불선원등이 자리하고 있다.



장죽전



장죽전 차나무

장죽전_구례군_2006

①화엄사 연기조사 효대

화엄사 각황전 왼쪽으로 올라가면 고대(高臺)가 있는데 이곳에 국보 35호인 4사자 3층석탑(속칭 孝臺) 이 있다. 최범술저 <한국의 다도> 차 유적지 편에 제일 먼저 소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례 화엄사는 신라 진흥왕 4년에 연기조사가 개창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각황전 뒤 잔등에는 국보 35호로 지정된 4사자 3층석탑의 석존(釋尊)사리탑이 있고 그 앞에 연기조사의 효대가 찻찬을 들고 있는 것으로 연기조사 몰후(歿後) 약 100년 뒤에 자장율사가 이것을 기리어 만든 것이다. 이것은 이 지리산에 화엄사 창건시부터 올리는 습속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석성우저 <다도>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지리산 화엄사(華嚴寺)는 신라 진흥왕(振興王) 4년 (543년)에 인도(印度) 출신 승려 연기조사(緣起祖師)가 개산(開山)하여 절을 이루었다. 각황전(覺皇전殿) 뒤등선에 국보(國寶) 35호가 있다 , 이름하여 4사자(四獅子) 3층석탑(三層石塔). 부처님 사리(私利)를 봉안한 곳이다. 그 앞에 연기조사가 찻잔을 들고 있는 석상(石像)이 있다. 효대(孝臺)라고 부른다.

이것은 연기조사가 그의 어머니의 명복(冥福)을 빌기 위하여 찻찬을 들고 있는 것으로 연기조사가 떠난 지 백여 년 뒤에 자장율사(慈裝律師)가 만들었다고 전한다. 화엄사가 처음 창건될 때부터 차와는 깊은 인연을 맺은 듯하다' 하였다.



화엄사 4사자 3층석탑

장죽전_구례군_2006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화엄사 연기조사 효대의 찻잔은 꾸며댄 이야기로 낙인이 찍히고 차 관계 문헌에서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그것은 1995년 <다담>(茶談)지 여름호에 '화엄종찰 화엄사일차 유적으로 오인 받고 있는 화엄사 연기조가 효대' 제하의 기사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연기조사가 들고 있는 것이 찻잔이라 하여 이것이 신라 차 유적이라고 알려졌는데 잘못된 견해이다.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고적도보'에 보면 연기조사의 어머니가 아니고 지장율사상이라 하며 석등을 이고 있는 승상이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은 찻잔이 아니고 사리 같은 것을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나와 있다.

1961년 3월 31일 발행한 '조선고적도보'권 4489면의 사진을 보면 당시사진에는 둥그런 구슬 같은 것이 찻잔 같은 그릇위에 올려져 있다. 그런데 언제인가 구슬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잔 같은 모양만 남아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 찻잔이라고 하고 연기조사에까지 소급시켜 찻잔이야기를 꾸며내기에 이른 것이다.'

조선고적도보와 사찰시리즈 화엄사의 연기조사 효대 사진까지 실증적으로 비교하고 연기조사의 어머니가 아니고 자장율사 상이라고 명쾌하게 자료를 제사하여 수긍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장죽전시배기념비



녹차꽃

장죽전_구례군_2006

이 문제에 관한 연구자의 조사,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효대의 인물 문제: 일제가 조사 발간한 도선고적도보(1916)에 '연기조사의 어머니가 아니고 자장율사 상'이라는 기록은 잘못이다. 그 까닭은 1486년에 발간된<동국여지승람>화엄사조에 중 연기(煙氣)는 어느 때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이 절을 세웠다 한다. 석상(石像)이 있어 어머니를 이고 섰는데 이것을 속담이 이르기를 '연기와 그 어머니가 화신(化身)한 곳이라 한다 하였고 판본(板本) 화엄 사적(寺蹟)에 신라 제24대 진흥왕 5년(544) 인도 승 연기(緣起)국사가 세웠다고 하였으며 선덕여왕 12년(643) 자장율사가 증축, 문무왕 10년(670) 의장대사가 장육전을 짓고 경덕왕(742-765) 청자석으로 화엄경을 새기고(石經: 화엄경 석경) 신라 말에는 도선국사가 중수하였다고 하였다. 또 <한국의 명산대찰>에 '신라 때 작품으로 전하는 바로는 연기조가가 어머니의 은공을 갚기 위해 문수보살을 친견하여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져온다. 탑 앞에는 아드님이 합장하도 선 효자탑인 석등이 함께 서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자장율사 상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둘째, 효대의 용기문제: 찻잔일 가능성이 더 높다.

조선고적도보의 둥그런 물체는 '둥그런 돌을 올려놓았거나 용기에 붙여서 조각을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었는데 이 용기의 둥그런 돌은 사진 촬영할 때나 그전에 오려져 놓았을 것이라도 추정된다.

그 까닭은 현제 남아 있는 찻잔 같은 용기 내부에 둥그스런 구멍이 매끄럽게 파여져 있기 때문이다. 만일 둥근 돌이 용기에 붙어 있었다면 깨진 조각이나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또 기록이 남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다음으로 제작 시기와 어머님께 공양하는 물건을 추정해보면 '견덕왕 때(755) 화엄사 효대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보면 당시는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차가 있었으며 석조(石造) 찻잔은 경덕왕 10년(751)에 조성된 석굴암의 문수보살상을 비롯, 영천 거조암의 5백라한강 중 찻잔 든 세 나한상 등과 탑전(榻前) 석조 공양찻잔은 신라 진흥왕 때 창건(553)하고 혜공왕 때 중수(776)한 법주사 미륵대불 앞의 석조 희견(喜見)보살입상이 머리에 이고 있는 대형 석조다기(연화문)와 후기신라 때 탑신부에 조성된 전남 승주군 낙안 금둔사지 탑신 공양상 등이 있다.

그리고 불교의식 중 육법(六法) 공양물은 차, 향, 꽃, 과일, 등(燈). 음식인데 둥근 물건은 과일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용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또 '사리(둥근 구슬 같은 것)같다'고 하였는데 3층 사리탑 앞에서 사리를 공양하는 것이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장죽전_구례군_2006

② 쌍계사 진감국사 대공탑비

신라 때 스님, 진감국사(774~850)의 속성은 최(崔), 이름은 혜소(慧昭), 전주 금마(金馬)사람으로 부모를 일찍 여의고 불법을 구하려는 뜻이 간절하여 804년 배를 타고 당나라 창주(滄州)에 가서 신감(神監)에세 중이 되니 얼굴이 검다하여 흑두타(黑頭陀)라 불리었다. 810년 숭산 소림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앞서 당나라에 가 있던 도의(道義)를 만나 함께 다니다가 도의는 먼저 귀국하고 스님은 종남산에서 3년 동안 지관(止觀)을 닦은 뒤에 길거리에서 짚세기를 삼아 3년 동안 오가는 사람에게 보시하다 830년 귀국하여 상주 노악산의 장백사에 있다가 지리산으로 가서 화개곡의 삼법(三法)화상 란야(蘭若)의 옛터에 절을 짓고 있었다.

838년 민애왕이 즉위하여 만나기를 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으므로 사신을 보내어 '해조'라 호하고 다시 서울(경주)로 오도록 하였으나 가지 아니하였다.

소성왕의 이름을 피하여 '조'를 '소'로 고쳐 혜소라 하였다.

뒤에 남령에 절을 짓고 옥천사라 하고 육조(六祖)의 영당(影堂)을 세우고 신라 문성왕 12년에 죽으니 나이 77세, 법람 41, 현강왕이 시호- 진감선사 탑호一글을 지어 세운 진감국사비(국보 228호)가 지금 쌍계사에 있다.



쌍계사 일주문



진감국사 대공탑비

장죽전_구례군_2006

진감국사의 비석글에 다시금 중국차을 공양하는 사람이 많으면 섶나무를 돌솥에 불 때어 가루 내지 않고 달여서 이르기를 '나는 이맛이 어떠한가를 가리지 않고 단지 배만 적실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진감국사는 대렴이 차씨를 가지고 온지 2년 후인 830년 귀국하여 삼법화상 '란야의 옛터'에 절을 짓고 838년 이후에 남령에 절을 다시 짓고 옥천사(뒤에 쌍계사)라 하였으므로 흥덕왕 3년(828)에 화개 골짜기에는 절이 없고 터만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흥덕왕은 대렴이 가져온 귀중한 차 종자를 허허벌판인 쌍계사 계곡에 심었겠는가'를 또는 대 명찰인 화엄사 부근에 심었겠는가'를 고찰해볼 때 화엄사 부근에 심었으리라는 설이 보다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죽전_구례군_2006

- 천은사의 역사

남방제일선찰 천은사(泉隱寺)는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70번지 지리산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의 말사로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사찰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절은 지리산 가운데서도 특히 밝고 따뜻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지리산의 높고 깊은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물이 절 옆으로 펼쳐지고 우람한 봉우리가 가람을 포근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워낙 광대한 지리산자락이라 교통이 불편하였으나 지금은 노고단에 이르는 지방도로가 절 앞까지 이어져 있고 화엄사까지 직통하는 도로가 놓여 있어 어렵지 않게 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산문과 일주문을 지나 독특하고 운치 가득한 수홍문을 건너 절을 찾는 즐거움은 아주 특별합니다. 지리산의 빼어난 산수와 풍광 그리고 그 속에서 불법의 진리를 만나는 것은 더 없는 보람일 것입니다.

천은사는 신라 때 창건된 고찰이다. 신라 중기인 828년(흥덕왕3)에 인도의 덕운(德雲) 스님이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명산을 두루 살피던 중 지리산에 들어와 천은사를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천은사 중건 당시 지어진 극락보전 상량문에 의하면 창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당 희종 건부2년(875년)에 연기(도선국사)가 가람을 창건하였고 후에 덕운이 증수하였다."

<唐 僖宗 乾符二載 緣起相形而建設 德雲因勢而增修.....>"



천은사 경내



천은사 수홍루

탱화 및 불상탱_홍윤직_1987/문화재청 홈페이지/
천은사 홈페이지

그런데 일제시대에 간행된 구례읍지에는 이 기록에서 창건주 연기는 도선국사(道詵國師, 827~898)의 별호인데 이것을 유래로 잘못 해석하여 도선국사 이후의 스님인 덕운을 창건주로 왜곡 전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찰들이 도선국사가 창건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 유학시 일행선사로부터 3천8백 비보사찰을 중건 혹은 창건토록 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신라 조정에 긴밀히 모의하여 신라 국토 곳곳에 사찰과 탑을 건립하였던 점을 생각하면 천은사도 바로 이러한 경우일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렇게 볼때 인근 화엄사의 창건연대(544년)와 비교해 볼때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기 보다는 중창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창건주에 대한 기록은 밝혀진 바 없어 그 시기와 유래를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절은 더욱 번성하여 충렬왕 때(1275~1308)에는 '남방제일선원(南方第一禪院)'으로 지정되었다. 그 후 계속해서 많은 수도자가 진리의 광명을 터득하는 수행처로서의 역할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아쉽게도 절의 역사 가운데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 있고, 더욱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임진왜란 등의 병화를 겪으면서 대부분 소실되는 등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후 다시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1610년(광해군2)의 일이다. 당시 절의 주지 혜정선사(惠淨禪師)가 소실된 가람을 중창하고 선찰로서의 명맥을 이끌어 나갔다.

뒤이어 1679년(숙종5)에도 단유선사(袒裕禪師)가 절을 크게 중수했는데, 이로부터 절 이름을 감로사에서 천은사로 바꾸었다.



일주문



감로사

탱화 및 불상탱_홍윤직_1987/문화재청 홈페이지/
천은사 홈페이지

1715년(숙종41)에는 팔상전에 영산회상도를 조성하였고, 1749년(영조25)에는 칠성탱화를 조성하였다. 1774년(영조50) 5월에는 혜암선사(惠庵禪師)가 그 전 해에 화재로 소실되었던 전각을 중수하면서 절을 새롭게 중창하였다. 혜암선사는 수도암(修道庵)에 주석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남원부사 이경륜(李敬倫)에게 도움을 구하고 산내의 여러 사찰과 힘을 합쳐 2년간에 걸친 중창불사를 원만히 이루어냈다. 지금의 가람은 대부분 이때 이루어진 모습이니 혜암선사의 중창은 절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절 일원이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35호로 지정되어 있다.

– 천은사의 전설

절 이름이 바뀐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한다. 단유선사가 절을 중수할 무렵 절의 샘가에 큰 구렁이가 자주 나타나 사람들을 무서움에 떨게 하였으므로 이에 한 스님이 용기를 내어 잡아 죽였으나 그 이후로는 샘에서 물이 솟지 않았다. 그래서 '샘이 숨었다'는 뜻으로 천은사라는 이름이 붙였다고 한다. 그런데 절 이름을 바꾸고 가람을 크게 중창은 했지만 절에는 여러 차례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불상사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마을사람들은 입을 모아 절의 수기(水氣)를 지켜주던 이무기가 죽은 탓이라 하였다. 얼마 뒤 조선의 4대 명필가의 한 사람인 원교 이광사(李匡師, 1705~1777)가 절에 들렀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자 이광사는 마치 물이 흘러 떨어질 듯 한 필체[水體]로 '지리산 천은사'라는 글씨를 써 주면서 이 글씨를 현판으로 일주문에 걸면 다시는 화재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사람들은 의아해 하면서도 그대로 따랐더니 신기하게도 이후로는 화재가 일지 않았다고 한다.



천은사 현판



천은사 일주문

탱화 및 불상탱_홍윤직_1987/문화재청 홈페이지/
천은사 홈페이지

- 천은사 문화재

보물 제1340호 천은사 괘불탱 (泉隱寺掛佛幀)

괘불은 기우제, 영산제, 예수제, 수륙제 등 사찰에 대중이 많이 모이는 큰 집회 때 야외에 모셔지는 거대한 불화이다. 평소에는 법당 뒷 편의 괘불함에 보관되며, 사용 시에는 옥외의 괘불대에 걸려진다.

티벳에서는 탱화를 탕가(Thangka)라고 발음하고 있는데, 그 발음이 우리의 탱화와 유사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불화를 한자로 '幀畵'라 표기하고 그대로 '정화'라 읽지 않고 '탱화'라 발음하는 것에서 그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하겠다. 천은사 괘불은 비단채색으로 크기는 길이 894㎝, 폭 567㎝로, 거대한 화면에 꽉 차게 정면을 향하여 서 있는 석가의 모습을 그렸다.

조선 현종 14년(1673)에 경심·지감·능성이 그린 이 괘불은 단독상으로 괴체적인 형태, 항토색이 강한 독특한 채색, 필선, 문양 등에서 17세기 후반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2002년 7월 2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보물 제1340호 천은사 괘불

탱화 및 불상탱_홍윤직_1987/문화재청 홈페이지/
천은사 홈페이지

- 보물 제924호

천은사 극락보전 아미타후불탱화
(泉隱寺極樂殿阿彌陀後佛幀畵)

천은사 극락보전 아미타후불탱화는 세로360㎝, 가로277㎝ 크기의 삼베바탕에 짙은 녹색과 적색으로 채색되었는데, 그 구도와 기법등이 매우 훌륭하고 보존 상태가 좋아 현재 보물 제924호로 지정되었다. 제작은 1776년(영조52)에 극락보전을 지금의 모습으로 중수하면서 신암(信庵)스님을 비롯한 14명의 금어 스님이 조성하였다.

천은사 아미타후불탱화는 복잡한 극락세계를 모두 나타내면서도 보는 사람의 이해를 돕도록 각각의 존명을 적고 있다.

대체로 16세기의 설법도 둥근 원형의 구도를 지녔으나, 이후에는 화면 가득히 온갖 불보살과 신중을 복합적으로 배열하는 군도형식(群圖形式)의 불화로 변화한다. 이 같은 군도형식의 불화가 가장 안정적이고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천은사 극락보전 아미타후불탱화라 할 수 있다.



보물 제924호
천은사 극락보전 아미타후불탱화

탱화 및 불상탱_홍윤직_1987/문화재청 홈페이지/
천은사 홈페이지

- 보물 제1546호

구례천은사금동불감(求禮 泉隱寺 金銅佛龕)

불상을 모시기 위해 나무나 돌, 쇠 등을 깎아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작은 규모로 만든 공간을 불감(佛龕)이라 한다. 불감은 그 안에 모셔진 불상의 양식뿐만 아니라, 당시의 건축양식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43.3㎝ 높이의 금동불감으로 정면 전체를 여닫이식 문으로 구성하여 예배나 의식 때만 열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좌우 문 안쪽면에 칼을 든 인왕상이 1구씩 돋을새김되어 있는데 정교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다. 정면 벽에는 중앙에 비로자나삼존상과 주위에 10대 제자상을 돋을새김하였다.

비로자나불상은 전형적인 8각의 연꽃무늬 대좌 위에 앉아 있다. 손은 양 손을 가슴에 올리고 왼손 검지손가락을 오른손이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당시의 비로자나불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손모양이다. 얼굴이나 신체는 단아하며 대좌는 비교적 정교한 편이어서 격조 높은 조각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좌우 벽에는 꽃무늬들이 화려하게 새겨져 있고, 천장에도 여러 무늬가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어 화려하고 장엄한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입구 문을 열면 좌우에 금동불 2구가 모셔져 있는데, 위로 향한 연꽃무늬와 엎어놓은 연꽃무늬로만 구성된 고려말 조선초의 전형적인 대좌 위에 앉은 같은 수법의 불상이다. 얼굴이나 신체는 단아하지만 다소 경직된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벽면에 돋을 새김한 불상들은 비교적 얼굴의 형태나 옷주름의 묘사가 유연하고, 꽃무늬 같은 무늬가 화려할 뿐만 아니라, 인왕상의 힘차고 발랄한 표현 등은 이 불감이 뛰어난 작품임을 보여준다.

탱화 및 불상탱_홍윤직_1987/문화재청 홈페이지/
천은사 홈페이지

흔히 나옹화상의 원불(願佛)로 알려져 있으며, 불감 뒷면에 불상은 신승, 불감은 김치, 박어산 등이 만들었고, 박씨 부부가 시주하였으며, 신음 등 네 승려가 참여하였다는 내용의 기록이 있어 흥미를 높여 주고 있다.

이 불감은 삼신불과 삼세불의 도상이 융합되어 도상적으로 매우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여말선초의 조각, 회화, 금속공예, 건축양식, 문양 등을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되어 전라남도 시도유형문화재 제29호에서 2008년 3월 보물로 승격 지정되었다.



보물제1546호 천은사금동불감

탱화 및 불상탱_홍윤직_1987/문화재청 홈페이지/
천은사 홈페이지

- 도계암

구례 천은사에 속한 암자로서 고려 말 나옹대사가 1379년에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도계암은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광해군 2년 혜정선사가 암자를 다시 짓고 중건하였다. 1918년 풍운대사가 법당과 요사체를 다시 중건하여 보존되어 있다.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69번지에 위치한다.



도계암 내부



도계암 현판

탱화 및 불상탱_홍윤직_1987/문화재청 홈페이지/
천은사 홈페이지

- 수도암 (修道庵)

구례 천은사에 소속된 암자로 신라 흥덕왕 때 덕운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그 후 도선국사에 의해 암자는 다시 중건되었다. 수도암은 남한 제일의 방장 선원으로 널리 알려진 유서 깊은 사찰이었다. 그러다 1948년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나면서 수도암 암자가 소각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수도암의 스님들이 선원 건물을 방광초등학교 건립용 목재로 희사하여 사찰터만 남게 되었다. 이후 1980년 평전화상 스님이 수도암 복원을 추진하였고, 대웅전과 산신각, 선원본채, 요사채가 세워졌다.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 1-32번지에 위치한다.



수도암 전경



수도암 전경

탱화 및 불상탱_홍윤직_1987/문화재청 홈페이지/
천은사 홈페이지